

전공영어 최시원팀 강의 특징

1. 일영문학, 영어학, 영교의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팀

1-2월 기본 이론, 3-4월 심화 적용, 5-6월 기출분석이라는 통일된 curriculum을 통해 임용시험 전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모고에서도 모든 영역의 문제를 임용 기출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모든 영역에서 대비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조합을 보여줍니다.

2.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 & writing seminar

약 5개월 간 매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고와 해설 이후에 따로 진행되는 writing seminar를 통해 실전에서 쓰인 모범적인 답안을 분석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오개념을 없애고 답안 작성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3. 꼼꼼한 첨삭

모의고사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ashback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최시원 팀 첨삭반은 문제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주고, 같이 시험을 보신 다른 선생님들의 모범 답안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오개념이 있고, 답안 작성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서술이 부족했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의고사 답안에 대한 피드백은 최시원팀이 가장 상세하고 꼼꼼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답안과 피드백, 수강생 모범 답안을 계속 비교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4. 세심한 care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고를 보는 토요일이나 writing seminar가 있는 월요일 이외에도 학원 연구실에 있는 김수아, 최시원, 최진호 강사에게 면담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면 힘든 수험 생활을 조금은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 합격자 샘은 방향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언제나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던 강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합격했던 선배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수험생 샘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전공 영어 2차 준비 TIP

2009년 임용시험 서울 합격자이자 현직 교사였던 최시원 강사의 설명과 피드백을 통해 2차에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12월 최시원 팀 직강을 다녔습니다. 학원 내에서 스터디를 주 3회 실시했습니다. 이 때 기출을 1회독했습니다. 사실 시험이 끝난 후 확신이 없어서 2차 준비를 안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처럼 예상치 못하게 붙을 수도 있고, 설사 떨어져도 그 다음 해에 도움이 되니까요!”

“사실 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2차 시험 대비를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2020학년도 시험은 제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1차 합격이 되고 나니 남은 기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져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꼭 2차 준비를 되도록 일찍 시작하시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이 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비록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준비하는데 여유가 생깁니다.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것처럼 2차 시험 준비도 하시길 바랍니다! ^^”

- 1차 발표 전 2차 강의

1) 복사하기

수업 실연과 면접 모두 기출 문제의 모범 답안을 그대로 베껴 실연하는 방식으로 해 실연의 감을 익힙니다. 강의에서 면접의 경우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접근하며 기출 문제를 토대로 가지치기하며 풍부한 답변을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비록 답을 따라하는 것이지만 면접을 할 때 말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좋고 그 문제 속의 내용과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업실연의 경우 빔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수강생이나 합격자들의 실연 답안 방식을 참고하여 필기하고, 그 내용을 스터디에서 적용합니다.

2) 연습하기

면접과 수업 실연 둘 다 마찬가지이지만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섯 분의 평가관들이 계신데 스터디원들이나 강사님들 앞에 설 때보다 몇 만 배는 더 떨립니다. 연습할 수 있을 때 연습해야 두려움을 극복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창성을 위해 답변은 주제문 1문장 + 근거 1문장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만 말하는 연습합니다.

3) 공부하기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행복한 교육' 잡지도 읽고, 교육청 시책과 교육과 관련된 뉴스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읽고 정리합니다. **1차 발표 전까지 면접은 실전 연습보다 공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1차 발표 후

1) 학원 일정

1차 발표 후에 합격자들이 모여서 학원 내에서 지역별 스터디를 만듭니다. 스터디별로 공부를 같이 하면서 개별적으로 수업 실연과 심층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때는 기출 문제가 아닌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의 문제를 수업실연하거나 면접 실연을 했던 합격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기도 합니다.

2) 스터디 결성

스터디에서 수업실연과 면접 모두 기출을 연습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터디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피드백만 받고 넘어가는 것과 그걸 적용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더불어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스스로 성찰일지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작년 합격자 피드백

2차 시험에 임박해서는 수업실연과 나눔 및 심층면접과 집단토의를 할 때 직접 작년 합격자 선생님이 오셔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수험장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팁도 얻으니 불안도 줄고 큰 힘이 됩니다.

"수업실연이나 수업 나눔도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저는 초수 때 실연을 망하고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나눔을 6분 만에 끝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연 망해도 나눔을 살리자고 다짐하고, 역시나 실연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지만 나눔은 당당하게 다시 제 수업을 성찰하면서 준비한 대로 얘기했습니다. 수업을 성찰하면서 pause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할 때는 그래도 유창하게, 최대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고집어 내려고 애썼어요. 원래 제가 나눔 때 쓰던 틀을 실연에서 많이 못해서 아쉬웠지만 최대한 했던 것들을 다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분 정도 채우고 나왔습니다."

전공영어 최시원팀 연간 커리큘럼

1) 연간커리큘럼 특징 및 월별 강좌 설명

월	영어교육학 / 모의고사반 강의 (금) 오전 10:00 ~ 오후 13:00	영어교육학 원서 특강 (금) 오후 2:00~4:00	자습 (금) 16:00~22:00
1~2	강의명: 영어교육학 기본 이론반 교재: 최시원 영어교육학 Conceptual (2021. 1. 출판) - 영어교육학의 기본 개념과 실제적 적용을 중심으로 임용 영어교육학의 뼈대를 세운다.	1차 합격자 대상 수업실연/심층면접 피드백 특강	개인 자습 및 질의응답
3~4	강의명: 영어교육학 심화 적용반 교재: 최시원 영어교육학 Practical (2021. 3. 출판) - 기본 이론반에서 이해된 내용을 실제적 수업 사례에 적용하며 실전 감각을 키운다.	<TBP/PLLT 문제풀이반> - 주요 원서인 TBP/PLLT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실전적 문제풀이를 통해 영교의 개념을 체계화한다.	
5~6	강의명: 영어교육학 기출 분석반 교재: 최시원 영어교육학 Analytical (2022. 5. 출판 예정) - 2022학년도까지 출제된 최근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그 안에 나타난 주요 문제와 경향을 파악하여 임용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Writing Conferencing> - 2:00~5:00 서술형 기출 문제 답안 작성에 대한 개인별 첨삭 지도 (개강일 orientation에서 schedule 작성)	
7~8	강의명: 전공 영어 영역별 모의고사반 (총 8회) (토요일) 교재: 영어 교육학 기입형 / 서술형 시험지 & 해설지 - 기입형 / 서술형 (24~28점) 영역별 문제 풀이를 통하여 실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습 <Writing Seminar> (월요일) - 영역별 모의고사 실시 후 영어교육학 문제에 대한 개별 첨삭 및 쓰기 요령 지도		
9~11	강의명: 전공영어 실전 모의고사반 (총 10회) (토요일) 교재: 영어 교육학 기입형 / 서술형 시험지 & 해설지 - 기입형 / 서술형 (24~28점)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하여 실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습 <Writing Seminar> (월요일) - 실전 모의고사 실시 후 영어교육학 문제에 대한 개별 첨삭 및 쓰기 요령 지도		
12	강의명: 2차 전공 영어 실전 대비반 (월화수목금요일) 과목: 심층면접,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집단토의 조별로 심층면접과 수업지도안 및 수업실연 및 집단토의 연습과 피드백		

[영교 공부 방법]

“영어교육 고득점의 핵심은 1) 키워드 위주의 짧은 서술 2) 목차 공부입니다. 먼저, **[키워드 위주의 짧은 서술]**이 중요한 이유는 키워드가 있어야 채점이 되고 짧게 써야 시간을 절약해 일반영어와 영어학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최시원 교수님의 강의와 자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5-6월 기출분석 강의에서 암기해야 할 문장이나 키워드를 짚어 주셨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출문장만 따로 정리해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효율적으로

영어교육은 다른 영역에 비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깊게 파고 들지 않는 게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최근 영어교육학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유형 일지라도 묻고자 하는 핵심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모고를 볼 때 영어교육 문제에서 답이 잘 안 보여도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중요한 개념 위주로 꺼내 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쓰기 중심으로

영교를 공부할 때는 자신만의 키워드 카드를 만들거나 연습 공책에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면서 공부할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기본서의 챕터별로 마인드 맵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교론은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키워드가 들어가게 답변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략적 글쓰기를 위해 7-11월에 있는 라이팅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모범 답안들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답안을 써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최대한 담백하게 키워드만 담아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3. 기출 중심으로

보통 재수 이상부터는 자신이 단권화한 책과 일부 원서만 보게 됩니다. 단권화 작업은 필수적이어서 한 번 정리해두면 공부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영교는 90년대 기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90년대~2000년대 기출**을 풀어보며 중요한 키워드와 기출에 언급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교는 **최근에 강조되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기출에서 자주 나온 문화 파트도 꼼꼼히 공부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영교는 기출이 중요합니다!**